

연승 탄 페퍼스, 시즌 최다승 '새 역사' 쓴다



오늘 GS칼텍스와 경기…12승 도전장
범실 관리·집중력 높은 수비 싸움 관건

상승세를 탄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원정길에서 시즌 최다승에 도전한다.

페퍼스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에서 GS칼텍스와 맞붙는다.

두 팀은 시즌 전적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현재 페퍼스는 리그 6위(11승 16패·승점33), GS칼텍스는 5위(14승 13패·승점41)에 자리하고 있다.

페퍼스는 최근 강한 서브 공략과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연승을 기록 중이다.

직전 도로공사전에서 강력한 서브 공략으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1세트를 내준 뒤에도 빠르게 흐름을 회복하며 3-1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페퍼스는 구단 최다승 타이인 11승을 기록했다.

도로공사와의 경기 후 장소연 감독은 “득점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였다”며 “짧고 긴 서브를 써어 좌우로 움직임을 유도한 전략이 잘 통했다”고 평가했다.

에이스 박정아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난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박정아는 앞선 대결에서 GS의 공격수 실비의 득점을 차단하는 등 강세를 보였었다.

박정아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기담과 코트 내 리더십으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여기에 박은서와 박사랑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든든하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20점을 만들면서 연승을 이끌었던 박은서는 “선두(도로공사)를 잡았다가보다는 흘에서 연승을 이어간 것이 더 의미 있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눈앞의 플레이에 집중했다”며 “리시브를 많이 받으면서 앞에서 버티는 힘이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랜만에 주전으로 나선 세터 박사랑은 “낮은 블로킹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모든 공격수들이 고르게 득점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부담보다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시즌 중반 주전에서 빠졌을 때 속상했지만 내려놓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페퍼스의 최근 상승세에는 범실 관리와 집중력 높은 끈질긴 수비, 공격 전개가 큰 역할을 했다.

상승 흐름을 탄 페퍼스가 GS칼텍스 원정에서도 조직력과 집중력을 앞세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대 GS칼텍스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후반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비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이 강점인 만큼 이라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가 수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GS는 블로킹에 미들블로커와 윙의 연결에 의존하는 편으로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수비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페퍼스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다변

화된 공격 전개로 블로킹을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11일 GS칼텍스와의 5라운드 맞대결에서 연승과 함께 시즌 최다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3라운드 최종전에서 GS칼텍스를 <KOVO 제공>

제작한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한 뒤 기뻐하는 페퍼스 선수단.

지난해 11월 해남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이미는 무너뜨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시즌 막바지 상승세를 탄 페퍼스가 원정에서 시즌 최다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소연 감독은 “목표를 크게 정하기보다 한 경기

씩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 선수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원팀’으로 GS칼텍스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총상금 500만달러”…한국 여자 골퍼들 LET 사우디로

최혜진·윤이나·방신실 등 LPGA·KLPGA 스타 총집결

한국과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대회에 대거 모습을 보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혜진과 윤이나, 양희영, 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방신실, 유현조, 배소현 등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골프클럽(파72·6802야드)에서 개막하는 LET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LET의 2026시즌 개막전이다.

상금 규모가 500만달러로 크기도 하고, LPGA 투어가 1월 말 시즌 개막전을 치른 이후 이달 19일까지 대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하타오카 나사(일본), 에리야 주타누간(태국), 셀린 부티에(프랑스), 칼리 헬(잉글랜드), 대니엘 강(미국) 등 LPGA 투어를 주 무대로 삼는 선수들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지노 티파꾼(태국)은 나오지 않는다.

한국 선수로는 올해 LPGA 투어 데뷔를 앞둔 이동은이 샷 감각을 조율하고, 이달 초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준우승한 양희영도 출전한다.

또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홍정민과 신인왕 서교림 등도 LET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이 대회와 8월 런던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을 후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 아랍코는 4월 아랍코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 10월 아랍코 코리아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11월 아랍코 차이나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LET는 올해 30개 대회에 총상금 4000만유로(약 695억3000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시즌을 진행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해남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이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전남 펜싱,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은메달

전남도청 박소형·해남군청 권오민, 남녀 단체전 메달

전남 펜싱이 국제무대에서 남녀 동반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소속 박소형과 해남군청 소속 권오민이 2025-2026 시즌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학작했다.

박소형은 지난 8일 중국 우시에서 폐막한 2025-2026 여자 애비 월드컵 단체전에서 임태희, 박진

주, 송세라와 팀을 이뤄 결승까지 진출했다.

결승에서 개최국 중국을 상대한 한국은 35-45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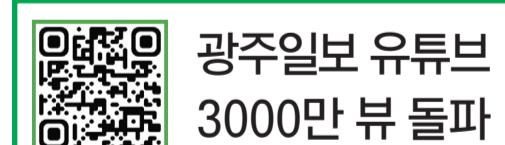
해남군청 권오민은 앞서 7일 독일 하이덴하임에서 끝난 2025-2026 남자 애비 월드컵 단체전에 황현일, 장효민, 박상영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위스와의 4강 승부에서 41-40 극적인 승리를

거둔 한국은 결승전에서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 45-37로 지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 결승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박소형·권오민은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첫 메달을 기록하면서 전남 펜싱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예술의전당
미음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토리움 콘서트 I
Bassoon
일시 : 2026-02-13(금)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